

한국언어정보학회 소 식 제 14 호 (1998년 9월)

KSLI Newsletter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No. 14, September 1998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내
전화: 0335-330-4293/4286 전송: 0335-330-4074 e-mail: hrchae@maincc.hufs.ac.kr

☞ 1998학년도 2학기 활동 준비 운영위원회 모임

우리 학회의 이번 학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지난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2학기 정기 발표회 일정과 발표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학회 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언어학 정보 2권 1호 발간, 2권 2호 원고 모집, 출판비 조달

우리 학회지 언어학 정보 (ISSN: 1226-7430) 2권 1호 (1998년 6월호)가 출판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곧 배부될 것이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문화사 (전화: 02-464-77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의 도서관이나 관련 학과에서 이 책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어학 정보 2권 2호가 1998년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오는 10월 31일까지 편집인 이현우 교수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32-860-7857 (O), 032-816-6795 (H), hylee@dragon.inha.ac.kr).

작년 말에 출판된 언어학 정보 창간호의 출판비 50만원 중 10만원을 옥스포드 출판사 한국지사 에서 보조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회장 (10만원)과 운영위원들 (2만원씩)이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옥스포드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2권 1호부터는 출판비가 7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저자들로부터 논문 게재료를 받아서 출판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PACLIC 13 발표 논문 모집

1999년 2월 10일부터 12까지 타이완에서 열리는 PACLIC 13의 논문 제출 마감일이 10월 1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sie.ncku.edu.tw/paclic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 등정

서울대의 장석진 교수님께서 이번 여름에 학술원 회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학회와 한국언어학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이기용 교수님은 지난 학기부터 일본의 천리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며 이정민 교수 (서울대), 강범모 교수 (고려대)와 김용범 교수 (광운대)께서는 이번 학기부터 각각 UCLA, Harvard U와 SUNY-Buffalo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회비는 일반 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 회원은 3,000원입니다. 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이하원, 계좌번호: 132-20-202434, 제일은행 한국외국어대 지점).

☞ 9월 19일 모임 발표자의 논문 초록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and an HPSG Analysis

박병수/김종복 (경희대학교)

한국어 관계절은 어떤 다른 현상보다도 복잡하며 여러 언어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어 관계절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복합명사구제약 (CNPC)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여러 유형의 자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한국어 관계절이 이러한 통사적 제약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약기반이론인 핵어중심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유형에 대한 선언적 제약과, 다단계 상속위계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그리고 구문 (constructions)의 개념들이 상호작용하여 한국어 관계절에 대한 명료한 분석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orphology and Semantics of Spanish Change of State Verbs

신자영 (서울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생성된 단어의 내부 구조는 통사규칙의 계층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며, 따라서 고유의 형태규칙들이 문법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module로서 존재한다는 형태부의 단원성 (modularity)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Baker (1988) 등에서 형태부와 통사부의 관계를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단어들의 theta relations는 어휘부에서 명시되어야 할 자질로서 형태론에서의 논항구조의 유전현상은 어휘부와 형태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되며, 특히 논항구조는 술어의 의미구조의 투사라는 전제하에 어휘의미론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역동사는 어휘의미 구조의 통사적 투사, 형태부와 통사부의 관계 등의 문제에 많은 논점을 제시하여 왔으며, 본 논문은 스페인어에서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사역동사, 즉 상태변화동사를 통하여 몇 가지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사역동사의 형태, 통사적 행태가 설명되려면, 정확한 어휘의미론적 기술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특히 사역동사의 내적 상구조 (aspecto-temporal representation)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Theta Theory나 Lexico-Conceptual Structure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의미단위들을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Pustejovsky (1995)의 Event Structure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Hale and Keyser (1993), Levin (1993), Levin and Rappaport (1985) 등 영어에 기초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형용사에서 파생한 상태변화동사가 단일한 유형, 즉 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을 허용하는 동사로 간주되었으나, 본 논문은 스페인어의 205개의 형용사 파생 사역동사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 동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유형 (Direct vs. Indirect Causation, Gradual vs. Punctual Causation)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유형의 정확한 Event Structures와 논항구조가 제시되며 이에 대한 형태론적, 의미론적 설명이 제시된다.

<참고문헌>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rer, H. (1991) "The 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 a study in parallel morphology", *The Linguistic Review*, 119-158.
- Hale, K. and Keyser, S.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Shin, J. (1997) *Morfología y Modularidad: la formación de los verbos causativos en español*,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한국어 자원문법 구축의 실제

노용균 (충남대학교)

자연언어 문장들의 자동처리 (음성합성, 자동 문서 요약, 기계번역, 오류 탐지 및 교정 등)에 필수적인 과제로서 통사구조 부여 (parsing)가 있다. 처리대상 텍스트의 문장들(의 절대다수)에다가 그들이 갖는 통사구조들을 표시해 주는 과제다. 통사구조부여기 (parser)가 각 문장에 그 통사구조를 옳게 부여하려면 통사규칙군과 사전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Allen (1994)의 bottom-up chart parser를 이용해서 모든 한국어 문장에 통사구조들을 자동으로 부여할 목적으로 발표자가 작성한 일련의 문법규칙군과 사전항목들, 그리고 이들을 확장해 나가는 절차들을 소개하고, MBC TV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 실제로 등장한 문장들을 이 문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약 200여개의 규칙 스키마로 이루어진 한국어 자원문법의 특징과 장단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리라 본다. 이 작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명을 받게 되는 논점들로는 낱말/접사의 구분, 어휘범주의 설정, 통사 부문과 의미부문의 분업, 보충어/부가어의 구분, 불필요한 중의성의 축소 방안 등이 있다.

한국어 특수조사 ‘-만’의 의미

최재웅 (고려대학교)

‘-만’을 비롯한 한국어 특수조사는 문법적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분포상으로는 문법 형태소인 일반 조사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소위 “격” 기능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법 형태소로 분류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만’으로 비롯되는 의미적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일부 한계점을 지적한 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형식의미론적 시각을 취하여, 언어에 대한 화자의 직관에 바탕을 두되 가급적 명시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연구는 크게 ‘-만’이 포함된 문장의 의미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합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의 어휘적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만’이 포함된 문장의 의미적 성격 규명의 문제를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만’의 주요 의미기능은, 간단히 말해, ‘등록된 혹은 기대된 자매항목이 존재하며, ‘-만’이 붙은 요소와 대립되는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만’의 의미해석에 도입된 ‘전제 (presupposition)’, ‘단언 (assertion)’, ‘함축 (implication)’, ‘기대된/등록된 자매항 (sister members)’, ‘유일 (unique)’ 등의 개념은 그 후 이루어진 대부분 연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 (2)는, (3)에서와 같은 일련의 명제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 (1) 철수는 영희만 좋아한다.
- (2) ㄱ. 철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희가 유일하다.
 - ㄴ. 철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희에 제한된다.
 - ㄷ. 철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희 하나로 (유일한 것으로) 한정된다.
 - ㄹ. 다른 사람(들)은 철수가 좋아하지 않는다.
 - ㅁ. 다른 사람(들)이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 위의 관련 명제들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장 (2)가 단언하는 바가 아래와 같다고 본다.

- (3) $\forall x[x \in C \wedge \text{좋아한다}'(\text{철수}, x) \rightarrow x = \text{영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문장 (2)에 의해서 전제된다고 보는 바,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 (4) ㄱ. 갑돌이는 갑순이만 좋아해. 동네에 처녀 총각이라고는 둘밖에 없으니.
 - ㄴ. 아담은 이브만 좋아했다. 세상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ㄷ. 아무리 사람이 없아해도 어떻게 영희만 좋아할 수 있는지...

ㄹ. 다른 사람은 없어. 철수는 영희만 좋아해.

즉, 위 문장들에 의해, 전체의 특성인 ‘취소가능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문제인, ‘-만’ 자체의 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는 ‘-만’의 의미가 아래와 같다고 본다.

(5) 만 $\Rightarrow \lambda z \lambda P [\forall x [x \in C \wedge P(x) \rightarrow x = z]]$

이와 같은 ‘-만’의 어휘 의미에 입각하여, ‘-만’이 포함된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단계별로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용어상의 혼란상 및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형식 의미론적인 분석을 채용할 경우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밝힌다.

☞ 1998학년도 2학기 연구 발표회 계획 (한국언어정보학회): 제 37호

일시: 9/19, 10/17, 11/14, 12/12 (토) 9:30 a.m.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발표 시간: 기획 논문/강의--50분, 일반 논문--30분

9월 19일 (토), 9:30 a.m.

- 기획: 박병수/김종복 (경희대)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and an HPSG Analysis”
- 기획: 신자영 (서울대) “Morphology and Semantics of Spanish Change of State Verbs”
- 일반: 노용균 (충남대) “한국어 자원문법 구축의 실제”
- 일반: 최재웅 (고려대) “한국어 특수조사 ‘-만’의 의미”

10월 17일 (토), 9:30 a.m.

- 기획: 김수연 (이화여대) TBA
- 일반: 염재일 (연세대) “Modality in Dynamic Semantics”
- 일반:
- 일반:

11월 14일 (토), 9:30 a.m.

- 기획: 이해운 (서울대) “A Default-inheritance Approach to VP-ellipsis”
- 기획: 김중현 (서울대) TBA
- 일반: 이영헌 (조선대) TBA

12월 12일 (토), 9:30 a.m.

- 일반: 이익환/이민행 (연세대) “한국어 영조응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한 연구-- 확대 정보포장이론에 의한 접근”
- 일반: 채희락 (한국외대) “이동동사와 목적격 표시”
- 일반: 이현우 (인하대) TBA
- 일반: 이예식 (경북대) TBA

대우재단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권 발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5매),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발표 및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발표자와 참석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OHP 사용을 원할 경우 총무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